

보건복지부 제2차관, 화장품 수출 활성화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릴레이 현장 방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5일(목) 오후 3시에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화장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화장품 산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구다이글로벌, 에이피알, 에프앤코, 리만코리아, 아렌시아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주도 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실적은 2012년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12년 만에 2024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중국 위주의 수출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수출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특히, '24년 미국의 수입 화장품 중 한국 화장품 비중은 전체 3위이며, 미국 내에서 '기초화장품용 제품류'는 한국 화장품 비중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주요 국가 수출액(달러) 비중 : <'22년> 중국 36억^{45%}, 미국 8억^{11%}, 일본 7억^{9%}
→ <'24년> 중국 25억^{25%}, 미국 19억^{19%}, 일본 10억^{10%}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추진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미국 시장 진출 지원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 지원 등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100억 달러 실적을 달성한 화장품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면서, “美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화장품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김병진 (044-202-2973)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25. 5. 15.(목), 15:00~17:00 /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 용산구)
- (목적) 對美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수출 활성화·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의견수렴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화장품 기업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 (유관기관)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화장품기업)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구다이글로벌, 에이피알, 에프엔코, 리만코리아, 아렌시아

□ 프로그램(안)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현장방문	15:00~15:30	'30	◦ 아모레퍼시픽 본사 - 아모레퍼시픽 소개 및 현장 투어	아모레퍼시픽 (복지부 참석) *별도 운영
기업 간담회	15:30~15:35	'5	◦ 소개 및 인사말씀	
	15:35~15:40	'5	◦ 화장품산업 수출 현황 발표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5:40~15:45	'5	◦ 화장품산업 지원 사업 소개	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
	15:45~16:55	'70	◦ 화장품 수출 관련 애로사항 청취 - 기업별 화장품사업 추진 실적 및 전략 설명 - 애로사항 청취 및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6:55~17:00	'5	◦ 마무리	